



추석 가정예배

[예 배 안 내]

1. 가족 중 한 사람이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기도자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 추석 가족예배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민족의 명절인 추석에 온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은혜를 구하는 예배입니다.

3. 예배는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 1) 향이나 촛불은 켜지 않고 음식상도 미리 차려놓지 않습니다.
- 2) 가족이 한 자리에 함께 둘러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 3) 예배 순서지의 순서부분을 복사하여 가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 4) 가족들이 성경봉독이나 대표기도순서를 나누어 맡아 진행합니다.
- 5) 대표기도나 설교는 안쪽면과 뒷면의 예문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예배 시 다음과 같은 일은 삼가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선조에게 제사상을 차리는 일, 선조들에게 절을 하는 일, 선조들의 명복을 비는 일

5. 예배순서는 가정의 신앙사정에 따라 간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예배 후에 가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여 주십시오.

사도신경 _ 다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_ 435장(나의 영원하신 기업) / 다같이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3.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 <후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 _ 가족 중 / 대표기도문 참고

성경봉독 _ 학개 2장 4,5절(구1311) / 다같이

4.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5.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설교 _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 인도자 / 설교문 참고

기도제목 나눔과 기도 _ 다같이

주기도문 _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

가정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신앙, 감사의 자리가 재건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영성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삶의 모든 순간에 순종으로 온전한 믿음의 열매 맺는 가정, 거룩함을 지키며 진실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삼위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성령으로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게 인도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때로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초라하고 볼품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포로귀환한 이스라엘도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에 비해 재건된 초라한 성전을 보며 낙담에 빠졌습니다. 더구나 주변의 방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의 억눌림이 더 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고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 마음을 강하게 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굳게 하다’는 말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낙담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단단히 매어두라고 하십니다.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잠4:23) 말씀처럼,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먹는 우리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어진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은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그 맡겨진 일은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각자의 자리에서 일상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돕는 분이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기는 두렵고 망설여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히 주어진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한 언약의 말씀과 나의 영(성령)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확신을 주십니다. 상황은 계속 변하고 주변의 여건은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정 안에 거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의 환경에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우리 가정이 이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또한 변함없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남은 올 해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스스로 굳게 하며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모든 식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제목 나눔

